

韓國心理學의 回顧와 展望

金 聖 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實驗科學으로서의 心理學의 100周年을 記念하는 이 모임에서 우리나라에서의 心理學의 過去와 將來를 생각해 보는 것은 緊要하고도 當然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先進諸國에서는 이미 100余年前에 心理學을 實驗科學으로서 本格的으로 研究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그 當時의 社會가 받아들여 支持하였고 後援하였으며 또 그 結果를 有用하게 利用해 나갔는데도 不拘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心理學과 社會의 紐帶가 緊密하게 形成되지 못한 感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責任의 所在는 且置하고 心理學을 專攻하는 人으로서는 우선 이 問題에 대한 眞正的한 檢討가 없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新生獨立國家로서 出發한지 不過 30余年밖에 안되고, 그것도 國土가 兩斷되어 南北이 激甚한 緊張속에 對峙狀態에 있으면서 우선 급한 國家安保라는 問題에 社會가 總集結되어 있다는 特殊性을 充分히 考慮한다 하더라도 先進社會에서는 廣範하고 緊密하게 社會와 直結되어 있는 이 學問이 이렇게도 現實과 유리되어 있다는 것은 分明히 큰 問題가 가로놓여 妨害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妨害要因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社會에 있어서의 心理學者들의 無氣力과 安逸主義, 心理

學에 대한 社會一般의 理解不足 내지는 誤解, 그리고 學問으로서의 心理學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한다거나 心理學의 소임의 不明確性등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現實을 克服함으로써 우리 社會에 心理學은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을 것이요 이것을 契機로 해서 心理學은 韓國에서의 特有的 發展을 期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韓國心理學의 現況과 앞으로 6~7年 정도의 將來를 展望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韓國心理學의 歷史와 現況

1920年代에 이미 李灌鎔·金法麟·廉光燮등이 歐美各國에서 心理學을 專攻하였으나 國內에서 직접 心理學을 教授하고 研究한 痕跡은 별로 없습니다. 그後 1930年을 前後하여 京城帝國大學에서 輩出된 心理學者로서는 任哲宰, 尹泰林, 李鍾淑등이 있고 1940年을 前後하여 國內外大學에서 李載晚, 李義赫, 成百善, 方顯模, 李本寧, 高舜德등이 輩出되어 解放된 新生國家의 心理學者로서 後進養成에 크게 努力한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1946年 2月에 이들은 韓國心理學會를 發足시켰습니다만 主로 會員들의 親睦을 目的으로 모였고 이렇게 할 研究業績은 내놓지 못하고 6.25動亂이라는 民族的 慘劇을 맞이하였

입니다. 6·25動亂時에는 李鎮淑과 高舜德이 軍事心理學의 研究와 活動에 參與하였으나 이 分野에서 이렇다 할 研究活動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動亂後 金泰午의 努力으로 1953년에 韓國心理學會는 再建되어 月例集談會를 主催해 왔으나 만 역시 親睦的인 會晤이 主가 되어 있었습니다. 動亂後부터 4·19내지 5·16에 이르는 10余年은 大學教授들의 大部分이 重任과 他大學出講으로 生計를 이어나가던 時期였기 때문에 研究活動에서 이렇다 할 業績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時期에 教育心理學分野에서의 鄭範謨와 中央教育研究所의 各種 心理檢査製作은 至大한 貢獻을 韓國心理學에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4·19와 이에 연이은 5·16은 우리 社會에 새로운 氣風을 振作시켰습니다. 學界나 教育界에도 이 영향을 받아서 教授들의 二重專任의 禁止와 研究費惠澤의 擴大 그리고 業績을 重視하는 昇進制度의 採擇이 實施되었으며 報酬도 어느 程度로 引上이 되어 大學에서의 教授들의 研究活動은 活潑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大學의 一般的 霧圍氣에 더하여 特히 心理學界에 영향을 주게 된 事件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962년에 서울大學校에 學生指導研究所가 創設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圖書와 施設의 整備와 心理學關係研究에 從事할 수 있는 人員의 養成과 諸般研究發表行事, 雜誌圖書出版등에 힘입어 心理學者들을 直接 間接으로 研究活動에 引導해 갔던 구실을 하였습니다. 이 研究所의 소임은 그 自體의 研究業績도 많았지만 心理學者 全般에 준 促進의인 役割이 크게 評價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研究所의 一般的 促進役割과 아울러 이 研究所의 財政的 支援과 施設提供을 받아서 學會活動도 더욱 活潑해져서 1964年 11月에는 臨床心理學分科會와 産業心理學分科會를 두게 되었습

니다. 그後 發達心理學分科會, 社會心理學分科會, 그리고 實驗心理學分科會까지 設置하였읍니다.

1968年부터는 心理學學術雜誌로 韓國心理學會誌가 年1回씩 發刊되었으며 心理學會報도 隔月로 刊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該當 機關들의 要求도 加勢되어 1971년에 臨床心理, 相談心理의 專門家資格認定試驗制度를 創始하여 1973年부터 臨床과 相談心理學者에게 各各 甲乙 두 等級의 資格証을 주는 試驗制度가 實施되었읍니다. 이것 역시 큰 變化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現在까지 12名이 두 分野의 專門家資格証을 取得하였읍니다.

動亂後 不過 20余名밖에 안되던 會員數가 1965年에는 140名이, 1978年 7月 現在로 214名이 되었읍니다. 이들의 專門領域을 보면 教育心理 33名, 臨床心理 29名, 相談心理 23名, 産業心理 18名, 社會心理 15名, 發達心理 11名 兒童心理 5名, 心理測定 4名, 實驗心理 3名, 學習心理 2名, 兒童發達 2名, 性格心理 2名, 犯罪心理 1名, 認知心理 1名, 知覺心理 1名, 兒童相談 1名, 組織心理 1名 宗教心理 1名, 學校心理 1名, 生理心理 1名, 應用心理 1名이며 나머지 54名은 專門領域을 記入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214名의 心理學會 會員中에서 38名이 博士學位를 가진 者입니다. 이 38名中 25名이 國外에서 學位를 取得하였고 나머지 13名이 國內에서 學位를 取得하였읍니다. 學位取得年度를 보면 2名을 제외하고는 모두 1965年 以後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韓國心理學의 本格的인 出發點은 1965年前後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碩士學位는 1978年까지 164名이 輩出되었읍니다. 서울大 42名, 中央大 26名 高大 26名, 成大 18名, 그리고 梨花女大가 52名이나 됩니다.

学士学位는 上記 5 大学外에 서울女大를 합친 6 個大学에서 1976年 現在로 1642名이 輩出되었읍니다.

표 1. 心理学会 會員들의 職場別 分布

職 場	1965年	1976年
大学專任教授	29	75
研究所 研究員	21	17
大学講師	11	4
政府機關	4	14
精神病院	0	3
中高校教師	1	3
政府企業体	0	2
私企業体	0	4
私企業社員 또는 個人事業	0	6
無職, 留學, 大学院生	15	12
	81*	140

* 會員數 75名인데 計81명은 一部 중복때문임.

다음에는 會員들의 職業分布를 따져보기로 하겠읍니다. 車載浩의 調査에 따르면 1965年 現在와 1976年 現在의 心理学会 會員들의 職業分布는 表1 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表1 로 볼때 1965年만 해도 心理学会 會員의 大部分은 대학이나 研究機關에 속해 있었읍니다. 그러나 1976年에는 勿論 大学에 속해 있는 人員數가 크게 增加되기도 하였읍니다만 前에는 勤務하지 않던 精神病院·政府機關·公私企業体에 相当數가 進出하고 있는 것이 特異하다 하겠읍니다.

心理学会 會員의 職業分布가 主로 大学과 研究機關에 偏入되었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大学에 있는 會員들도 따지고 보면 一部 몇몇 大学에 集中의으로 모여 있으며 아직도 많은 大学들이 心理学講義를 心理学会 會員이 아닌 非專攻人士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實情이며 또 研究所研究員도 韓國行動科學研究所, 韓國教育開發院, 家族計劃研究院, 그리고 5 個 大学の 附属

學生指導研究所에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1976 年度까지의 實情입니다.

다음에는 韓國心理學의 研究活動을 回顧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車載浩가 調査한 1950年부터 1975年까지의 心理學 各領域別로 發表된 研究들을 綜合하여 보니 表2 와 같습니다. 社會心理 88 篇, 相談心理 56 篇, 臨床心理 51 篇, 教育心理 46 篇, 性格心理 43 篇, 實驗心理 42 篇, 發達心理 41 篇, 應用心理 32 篇으로서 總計399 篇이 1975年까지 發表된 것입니다.

이를 年度別로 따져볼 때 1965年부터 10 篇以上이 되었으며 1967年부터 20 篇以上이고 1971 年부터 40 篇以上이 되었읍니다. 車載浩가 指摘하고 있듯이 心理學의 研究活動面에서 韓國心理學을 따져 볼 때 舍體的으로 活潑해지기 시작한 것이 1960年代 下半期부터며 特히 1967年부터 年 20 篇以上이 나오고 1970年을 期하여 年30~40 篇以上의 論文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先進諸國의 有能한 心理學者는 年 10 篇以上의 論文을 내놓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 心理學의 研究活動의 本格化는 前途가 遼遠하다고 보겠지만 韓國心理學의 研究活動面에서의 참된 出 發도 1960年代 後半期부터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韓國心理學의 著作數를 車載浩의 調査를 土台로 살펴 볼 때 1976年까지 128 卷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를 分野別로 보면 概論 25 卷, 發達心理 27 卷, 性格心理, 臨床心理 11 卷, 社會心理 9 卷, 方法論 9 卷, 實驗心理 6 卷, 教育心理 5 卷, 그리고 教養書가 25 卷이나 됩니다. 主로 教科書數가 大部分을 占하고 있습니다만 1970年부터는 새로운 研究를 土台로 한 著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韓國心理學의 새로운 畧수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까지도 韓國心理學의 發達취를 主로 年度

別로 比較하는 立場에서 따져 보았습니다. 이제 韓國心理學의 現況을 隣接科學들의 形勢와 比較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社會科學的 立場에서 다른 社會科學과의 比較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朴東緒는 韓國社會科學人名錄(1976年基準)에 収録된 人士들의 分析으로 韓國社會科學研究 現況의 評價를 試圖한 바 있습니다. 이 調査의 資料인 人名錄은 主로 國內大學의 專任講師以上의 教授職에 있는 者와 國內 重要 研究機關의 專任研究員職에 있는 者만을 収録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당수의 人員이 빠져 있는 것을 미리 考慮에 넣고 이 調査를 評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人名錄에 収録된 繪人員數의 各 學問分野別 分布를 보면 教育學 404名, 經濟學 308名, 經營學 265名, 法律學 265名, 歷史學 209名, 政治學 194名, 社會學 新聞放送學 111名, 行政學 100名 地理, 都市計劃學 67名, 心理學 46名, 考古人類學 19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表1에서 心理學會 會員으로 大學專任教授가 1976년에 75名이니 이 人名錄에서는 여러 分野에 重複되지는 못하게 했으나 相當數가 脫落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交分히 감안해 본다고 하여도 心理學이 다른 隣接科學에 比하여 사뭇 뒤떨어진

研究人員數를 지니고 있음을 認定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収録된 研究人들의 著書를 分類해 본 것을 보면 教育學 427편, 法律學 328편, 政治學 188편, 歷史學 170편, 經濟學 169편, 社會學·新聞放送學 137편, 經營學 120편, 行政學 110편, 心理學 68편, 地理·都市計劃學 44편, 考古·人類學 28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勿論 앞서 車載浩가 調査한 心理學會 會員들의 著作數보다는 半數밖에 안된다고 하겠지만 같은 資格을 지닌 各 社會科學끼리의 比較라는 立場에서 볼때 著作數에서도 다른 隣接 社會科學에 比해 心理學은 크게 뒤져 있음을 認定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韓國에 있어서의 心理學이 隣接科學보다 특히 뒤져 있는 現狀은 國際的인 趨勢에서 볼때도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車載浩가 提示한 美國의 有名한 몇몇 大學에서의 社會科學關係의 各 學科의 教授數와 全美國博士輩出數를 보니 教授數로 보면 UCLA에서는 心理學 85名, 政治學 50名, 法學 41名, 經濟學 33名, 社會學 33名, 人類學 29名, 地理學 24名입니다. UC Berkeley에서는 法學 77名, 政治學 52名, 經濟學 51名, 心理學 45名, 人類學 35名, 社會學 32名, 地理學 15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57

표 2. 心理學 分野別 年度別 研究數(1950-75)

分野 \ 年度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性 格 心 理				1	1		1			1		1	
応 用 心 理												1	
發 達 心 理					1		2						1
社 會 心 理										2	1		1
實 驗 心 理	1				1								
相 談 心 理													1
臨 床 心 理							1	2					
教 育 心 理						1					1	1	1
計	1			1	3	1	4	2		3	2	3	4

년부터 1967年 사이에輩出된 博士学位수로 볼 때 心理学 9276名, 经济学 4696名, 政治学 2554名, 社会学 2096名, 人類学 808名, 地理学 602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韓國心理学的 現況은 隣接社会科学与 比較하여 볼 때 人的資源面에서도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틀림없는 事實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떨어진 心理学的 地位向上이 무엇보다도 急先務로 다루어야 할 課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韓國心理学的 展望

韓國心理学的 앞날을 展望하는데 있어서 現在의 趨勢와 可能性에 立脚하여 앞으로의 傾向을 予測하는 面이 強調되어야 하겠지만 現況을 돌이켜 볼 때 앞으로 꼭 해야만 할 課題로 提起되는 當否性에 立脚하여 活動을 提求하는 展望도 합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앞에서 心理学分野의 人的資源面의 增強이 急先務라고 내세웠습니다만 現在의 趨勢로 보아 크게 增加될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라 하겠습니다. 1965年 4月에 心理学会會員數가 75名이 있으며 1976年 10月에 140名 그리고 1978年 7月에 214名이었습니다. 이 趨勢로만 간다면 1980年代 中盤期에서는 會員數가 400名에서 500名이 予

想되는 바입니다. 勿論 이제까지의 經濟發展이 急速한 增加一邊倒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膨脹을 그대로 앞으로 期待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昨今 兩年에 7個大學에 心理学科를 新設하는 政府施策이라던가 現存 各大學院 心理学科의 學生數 增加傾向으로 볼 때 앞으로 6~7年內에 現會員數의 倍增은 無難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表 1에 提示되었던 會員들의 職業分布를 土台로 1980年 中盤期의 會員數에 따른 職業分布를 予測해 보면,

大學專任教授	200
研究所研究員	50
精神病院	30
政府機關	50
公私企業體	50
無職, 留學, 大學院生	70

으로 展望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展望의 達成與否는 會員各者의 努力與否에 크게 依存되고 있음은 말할나위도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展望되는 會員數를 가지는 韓國心理学的 研究活動도 크게 增加될 것은 確한 일입니다. 車載浩가 調査한 1950년부터 1974년까지의 心理学 各分野別 研究篇數를 綜合해 볼 때 1965년에 12편, 1967년에 21편, 1971년에 40편, 1974년에 59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趨勢가 그대로 나갈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計
3	3	2	2	2	2	2	4	2		9	5	2	43
		2	1	1	3	2	7	4		5	3	3	32
1		2	2	4	2	1	1	3	4	5	9	3	41
1		1	1	2	4	10	4	5	7	15	17	17	88
1	2	1		2	2	3	7	6	2	5	9		42
1			1	3	2	1	7	13	9	10	5	3	56
1	2	3	1	7	2	6	1	4	8	4	6	3	51
	2	1	3		1	6	5	3	3	5	5	8	46
8	9	12	11	21	18	31	36	40	33	58	59	39	339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大體로 1985년에 가서는 年 100편은 無難할것같이 予見됩니다. 이러한 予見은 純粹하게 年度別 論文篇數의 그래프에 立脚한 予測에 지나지 않지만 各會員들의 이제까지의 研究活動이 그다지 活潑치 못했던 것을 감안할때 또 앞으로 더욱 부지런한 會員들의 研究活動이 있을수 밖에 없는 것을 考慮할 때 100편을 넘어서 150 편정도의 研究活動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研究活動을 分野別로 展望해 볼때도 역시 過去の 實績을 根拠로 予測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分野의 開發과 創造的研究은 우리社會의 새로운 要請과 會員들 各者의 굳은 決心과 피나는 努力에 左右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現況에 立脚한 予見만을 敘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性格心理学: 이 分野에서는 韓國人的 性格特徵, 韓國人的 地域的 性格特徵, 性格檢査, 知能檢査가 많이 研究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研究들이 活潑해질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應用心理学: 이 分野는 主로 産業心理学와 軍事心理学를 말합니다만 1965年以後 年 3~4 편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企業運營의 合理化와 軍의 精銳化라는 課題의 達成은 必然의인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分野의 研究는 急激한 增加趨勢를 나타낼 것으로 展望하는 바입니다. 公私立 業체의 人事管理方案, 安全對策, 作業의 効率化를 비롯하여 交通事故予防을 위한 各種對策, 軍의 適性配置와 訓練方案, 精神戰力管理方案등 많은 研究要請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副應하여 많은 心理學者들이 活潑하게 움직일수밖에 없으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發達心理学: 社會全般에 걸쳐 関心이 많고 또 實際 家庭教育이나 學校教育의 基礎로서 切實히 要請되고있는 研究分野로서 앞으로 크게 發達이

期待되고 있습니다. 1965年以後 이 分野의 研究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年以後는 年平均 4~5 편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必要性이 切實하고 韓國的인 特殊性에서도 새로운 理論이 期待되는 分野로서 크게 發展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社会心理学: 社会心理學的 研究는 1960年前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本格化된것은 1967년부터라고 봅니다. 이 分野는 理論的研究가 많은 편이며 특히 서울大學校心理學科는 中心으로한 體系的研究에 期待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88편이나 되는 많은 業績으로 보아 또 國家의 當面政策인 近代化라는 課業을 감안할때 앞으로 많은 活動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分野입니다.

實驗心理学: 이 分野는 좁은 意味로 잡아서 感覺心理, 知覺心理, 認知心理, 生理心理, 藥理心理, 動物心理등에 관한 연구를 包括하겠습니다. 1960年以前까지는 거의 研究된것이 없고 1960年代 中葉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약 40余편이 發表되었습니다. 그러나 感覺心理, 知覺心理, 動物心理쪽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認知心理, 生理心理, 藥理心理에 관한 研究는 꾸준히 業績이 지속되리라고 予測되는 바입니다.

相談心理学: 中·高等學校와 大學에서의 學生指導의 한 方法으로 學生相談이 크게 勸奨되고 있고 또 現代化되는 社會에서의 各種 問題解決의 方法으로 相談은 絶對的인 役割을 하는것이라고 볼 때 이分野의 研究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수밖에 없는것이라 하겠습니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本格的으로 研究되기 시작하였으나 每年 10편内外는 계속 發表되고 있는것으로 보아 앞으로 많은 業績이 予想되는 바입니다.

臨床心理学: 病의 人間의 診斷과 治療에 관한 理論과 方法에 관한 연구를 하는 이 分野는 역시 1965年을 前後하여 本格的으로 연구되기 시

작하여 每年 꾸준히 4~5 편식의 論文이 나오
고 있습니다. 이 分野에서는 아직 本格化되지
못한것으로 非行少年의 研究가 있습니다. 社会的
으로 크게 問題視되어있고 또 政策的으로도
研究와 対策이 크게 強調되고 있음에도 不拘하
고 研究는 本格化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該當機
関의 진지한 協調와 方法論的 基礎를 確固하게
굳힌 心理學者의 參與가 切實히 要望되는 課題
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教育心理学: 이 分野도 本格的으로 연구되기 시
작한것은 1965年前後라고 보겠습니다. 흔히 教育
心理学의 韓國心理学의 主流인것같이 보고 또
그런 印象이 짙었습니다만 이 分野의 研究가 그
리 많은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教育界에서 要求
하는 바도 크고 또 社會問題로 重要視되는 것이
라 앞으로 많은 研究가 期待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는 過去의 研究傾向을 土台로 앞으로
의 研究展望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외는 달리
오늘날의 우리의 与件에서 特別히 努力할 때 보
다 效果的인 結果를 거둘수 있는 分野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찌기 1975年에
이 問題를 言及해 본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學問研究風土에서 현재 人文
社会科学領域에서는 韓國學들이 일고 있습니다.
韓國에 固有한것, 韓國社會가 當面한 問題를 解
決하는데 도움이 될만한것을 研究하는 氣風입니
다. 이러한 研究는 特殊性이 많고 實際性이 많
으며 比較研究의인것이 많습니다. 心理学에서도
이러한 研究가 많이 이루어 저야 하며 또 그렇
게 함으로서 우리社會에서의 心理学의 位置를
찾어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째로 생각되는것은 先進諸國에서의 앞선 研
究들을 오늘날의 우리社會條件에서 比較하고 檢
証하여 既存理論의 確認과 修正 또는 適用範圍
의 擴大를 꾀하는 研究들입니다. 이른바 cross-

cultural한 研究라고 하는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런 研究는 앞서 말한 韓國學的
研究와도 相通하는 것입니다. 普遍的인 事實의
發見을 위해 協同하는것이라 獨創的인 研究라고
는 볼수 없으나만 이런 研究도 重要한 貢獻을
하는것이라 많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날의 韓國心理学이 크게 貢獻할 수
있는 分野는 東洋心理学의 研究가 아닐까 보는
것입니다. 長久한 東洋傳統속에 박혀있는 心理
學的理論을 現代心理学의 觀點에서 整理하고 體
系化시키는 것입니다. 東洋古典과 東洋傳統에 관
한 깊은 理解와 現代心理学의 體質를 兼有할 때
이루어질수 있는 分野이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
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
의 研究條件에서는 그래도 가장 可能性이 있는
分野라고 보는 바입니다.

勿論 이와같이 特殊한 韓國心理学의 研究分野
의 展望을 하게 된것은 現在의 韓國心理学이 保
有하고 있는 人的資源의 缺如狀態와 研究施設의
不備狀態 그리고 心理学의 研究를 뒷받침하는 社
會與件의 未成熟을 감안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
루 빨리 우리나라가 近代化되고 先進諸國의 心
理學者가 지니는 條件을 갖추수 있게 韓國心理学
은 特別히 積極的인 參與活動이 있어야하고 自
己成長을 위해 努力해야만 할것입니다. .

曹大京은 韓國心理学이 앞으로 해야할 課業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主張하고 있습니다. 첫째
로 研究分野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現在 이루어지고 있는 産業化過程에서 우리社會
의 구석구석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가지 社會變
化때문에 유발되는 多樣한 問題들을 心理學者는
다루어 나가야 할것이며 또 이러한 研究를 하
는데 있어서 보다 더 縱斷的이고 系列的이며 集團
的으로 集中的인 研究가 되어야 할것이며 또 韓
國人에 關한 問題에 置重되어야 한다는것을 勸

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心理学科의 教科課程에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心理学科에서 工夫한 学士들이 現在 心理学分野외의 다른 領域에서 많은 活動을 하고 있는것을 감안할때 現在の 教科課程을 바꾸어서 變化하는 社会에 適應하기 쉽고 또 伸縮性이 많게 教科課程을 改編시켜야 한다고 본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心理学者가 現在까지는 大学教授로서 活動하여 온것이 大部分이라 하겠지만 앞으로는 心理学者가 社会發展을 위하여 貢獻할수있는 多様な 職業分布를 가질수 있게 心理学者各자가 積極的으로 活動領域을 開拓해 나가며 必要한 자리에 定着해서 活動을 해야 할것이라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韓國心理学的 重要한 課業으로서 心理学者는 社会科学이나 医学등의 다른 分野의 学者들과 協同하여 研究活動을 展開하는 소임을 잇을 수가 없을것입니다. 心理学者 各자가 보다 着實한 方法論的 資質을 修練해 나가며 폭넓은 學問素養을 길러야 이러한 協同研究者의 구실을 充實히 할 수 있을것입니다.

車載浩는 韓國心理学的이 社会科学의 다른 分野의 學問과 協同해서 研究해 나갈 수 있는 具體的인 研究課題들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政治学分野와는 韓國人의 政治的態도의 分析과 그 形成過程, 指導者의 性格分析, 權力行使와 影響力, 宣傳에 관한 研究등이 研究될 수 있으며 外交学分野에서는 集團 間의 競争과 協力, 調整, 同盟形成, 및 緊張解消에 관한 研究를 같이 다룰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社会学分野에서는 家族, 人口의 問題, 社会的 態度, 國民性, 地域의 特性, 非行의 實態와 統制, 与論, 그리고 士氣問題 등에 관한 研究, 그리고 社会救濟에 關聯된 地域社会心理学的 研究에 관하여 協同研究가 可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人類学科는 育兒方式, 價值觀의 分析, 文化分

析, 集團精神病, 禁忌, 慣習에 관한 연구가 協同研究의 課題가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經營학과는 産業心理学者들이 특히 많은 協同研究는 해야 할것이라고 보겠습니다. 指導者의 資質評價를 위한 道具開發, 作業能率, 滿足度, 問題行動의 索出과 統制, 作業方式의 分析, 作業動機의 測定과 調節, 現場教育問題, 消費者心理, 創意性開發問題 등에서 많은 協同研究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經濟학과도 消費者, 販賣者의 心理라던가 企業家의 動機, 勞使 調停, 節約, 投資, 돈使用의 心理 등이 같이 研究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行政学分野에서는 機關의 組織과 構造, 報酬體制, 勤務評價問題, 士氣測定과 統制權威와 監督의 心理学的 分析 등이 같이 研究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教育学分野에서는 過去에도 密接히 協同研究를 하였다고 봅니다만 특히 教授心理学, 教育社会心理学에서 더욱 協同研究가 있어야할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環境学分野에서는 특히 騒音, 人口密集, 空間의 問題에서 心理学者의 協助가 있어야하며 특히 人口心理学者의 協助가 점차 重要視되고 있다고 봅니다.

法学分野에서는 犯罪心理, 裁判心理에 關係되는 여러問題 仲裁, 証言의 問題, 行刑制度의 效果問題, 取調審問에 관한 問題 등에서 心理学者는 協同을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 사람의 보잘것 없는 意見을 말 씀드리는 것을 마지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参 考 文 献

- 金聖泰. 75年度 年次大会에 즈음하여. 心理学会 報, 1975, 8, 1-2.
朴東緒. 韓國社会科学研究의 現況과 評價. 韓國

- 社会科学研究協議会 및 유네스코韓國委員會主
催 社会科学政策세미나 報告書, 1978, pp. 9-32.
- 車載浩, 韓國心理學의 歷史, 現況 및 社会科学
協同 研究의 方向. 社会科学論文集, 1976, 1,
61-100.
- Cho, Tae Kyung. Psychology today in Korea.
行動科学研究. (高麗大學校行動學研究所), 1978,
3, 99-110.